

한국판 PI(Perfectionism Inventory)의 타당화 연구: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윤 소 영

인천대학교

한 기 순

인천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Hill 등(2004)에 의해 개발된 PI(Perfectionism Inventory)의 한국판 타당화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 인천지역 소재 과학고등학교 학생 167명과 동일 지역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의 교육대상자인 중학생 161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평가적 완벽추구’, ‘지각된 부모의 압력’, ‘계획성’, ‘뛰어나려는 노력’, ‘타인에 대한 높은 기대’, ‘조직화’의 6요인 구조가 산출되었는데, 이는 원척도의 8개 하위요인 구조를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연구결과,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는 .78~.92 사이로 양호한 편이었고,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 역시 .93으로 신뢰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1257.618$ ($df=792$, $p=.00$), $TLI=.903$, $CFI=.911$, $RMSEA=.047$ 로 나타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인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한국판 PI는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영재의 특성과 한국문화를 반영한 완벽주의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여 이를 타당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완벽주의의 성향은 영재들이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 중의 하나임을 고려할 때 PI가 향후 영재들에게 보다 적합하고 타당한 완벽주의 측정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영재, 완벽주의, 척도 타당화

I. 서 론

문제 해결 능력과 결과를 중시하는 성취 지향적, 경쟁 지향적인 현대사회에서 당연한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은 환영받기 마련이다. Burns(1980)는 성취 지향적이고 자기에적인 현대사회에서 완벽하다는 것은 개인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이상적인 상태이며 성공을 위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미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

였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수행을 추구하는 완벽주의 성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완벽주의란 자신과 타인에게 상황이 요구되는 것보다 더 높은 수행의 질을 부여하는 경향으로서(Harmacheck, 1978)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개념이다. 초기 완벽주의에 관한 연구들은 완벽주의 성향을 단일 차원의 부적응적인 기능을 가진 심리적 특질로 개념화하기도 하였고(Burns, 1980; Pacht, 1984; Rice & Slaney, 2002), 완벽주의가 기능하는 양상에 따라 정상적 완벽주의(normal perfectionism), 신경증적 완벽주의(neurotic perfectionism)로 그 특성이 설명되기도 하였다(Harmacheck, 1978). Hewitt와 Flett(1991)은 완벽주의가 주로 자기 지향적 인식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을 대인관계와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완벽주의의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확장시켰는데, 완벽주의 성향이 지향하는 대상과 완벽 성향이 어디에 귀인 되느냐에 따라 자기지향적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타인지향적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로 유형화하였다. 이후 다차원적 완벽주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완벽주의의 적응적인 측면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Frost, Heimberg, Hoit, Mattia와 Neubauer(1993)는 다차원적 완벽주의를 요인 분석하여 적응적 완벽주의(adaptive perfectionism)와 부적응적 완벽주의(maladaptive perfectionism)를 제시하였다. 적응적 완벽주의는 개인적 기준, 조직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차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없고 긍정적 정서와 상관을 나타낸 반면,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의 비난, 부모의 기대, 행동에 대한 의심차원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차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우울 등 부정적 정서와 상관을 보였다.

완벽주의와 관련하여 본인 스스로 혹은 부모, 교사, 또래 집단에 의해 완벽해지도록 기대되는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영재들이다(한기순, 황은하, 2010). LoCicero와 Ashby(2000) 역시 영재는 자아존중감의 상실, 지연 행동, 미성취, 진로 미결정과 같은 부적응과 절망, 좌절, 무기력과 같은 감정적인 혼란을 자주 경험하는 완벽주의적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영재는 선천적인 이유나 경험적인 학습 결과로 인하여 일반아동에 비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고 이러한 완벽주의 성향이 학습에 대한 강한 동기로 작용하여 일반적으로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반면, 지나친 완벽주의는 자아존중감의 저하와 미성취 같은 학업적 실패뿐만 아니라 강박 관념, 우울 및 자살 시도 등의 병리적 증상으로 발전될 수 있다(윤초희, 윤여홍, 김홍원, 2004). 이러한 완벽주의 성향은 개인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을 설정하게 하여 개인적으로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모두 생산성으로만 판단하게 되어 부적응적 측면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자신의 과제에 집중하여 우수한 결과를 거두고 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강한 성취감을 맛보는 등 적응적 측면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황혜리, 2002).

최근의 연구는 영재들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완벽주의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거나, 적응적 방식의 완벽주의 성향이 높다고 주장한다(LoCicero & Ashby, 2000; Parker, 2000; Parker & Mills, 1996). Parker와 Mills(1996)는 영재들이 다른 또래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완벽주의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LoCicero와 Ashby(2000)는 영재들이 적응적 방식으로 완벽

주의 성향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재들의 높은 인지적 성숙과 과거 성공 경험으로 인하여, 높은 기준을 추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실패와 불완전함의 불안에 대하여 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Luthar, Zigler, & Goldstein, 1992).

완벽주의와 영재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논의에서 완벽주의의 정의와 측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LoCicero & Ashby, 2000). 즉, 영재와 일반 학생들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주로 병리적 측면의 완벽주의를 측정하는 데 쓰이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근 완벽주의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3-요인 또는 6-요인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는 그 타당성과 관련하여 학계에서 논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완벽주의 척도의 점수를 완벽주의 성향과 동일시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대두되었다(Shafran, Cooper, & Fairburn, 2002).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의 대안으로 등장한 긍정적, 부정적 완벽주의(positive and negative perfectionism)의 2-요인 척도 역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Flett & Hewitt, 2006). 국내에서도 완벽주의 척도를 타당화하고 관련 변인을 탐색하는 등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완벽주의의 구성요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문항의 내용적 부적합성이 제기되어 척도 및 요인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김혜진, 김옥분, 2009; 이기종, 김은주, 2007). 하정희(2010)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완벽주의 척도들은 완벽주의가 발현하는 학습, 대인관계, 수행 등의 서로 다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Parker(2000)는 영재들에게 나타나는 부정적 완벽주의뿐 아니라, 수월성 추구로 이어지는 완벽주의의 요인을 탐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 제기와 함께, Hill 등(2004)은 완벽주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Frost 등(1990)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F-MPS)와 Hewitt와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H-MPS)의 131개 문항을 분석하여 8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PI(Perfectionism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PI는 F-MPS와 H-MPS에서 중복되는 문항을 다수 제외하였고, 인정욕구, 반추, 계획성과 같은 이전의 다른 완벽주의 척도에서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완벽주의를 경제적이면서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Hill et al., 2004). 또한, 기존 완벽주의 척도들의 하위 차원을 경험 양식에 따라 분류한 김윤희와 서수균(2008)의 연구에 의하면, 완벽주의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대부분 인지, 행동, 대인동기적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차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은 PI가 유일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새로운 요인은 영재들이 나타내는 특성과 연관성이 크다. 윤여홍(2000)은 영재들에게 완벽주의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자신이 질적으로 우수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인식, 주변 사람들의 칭찬으로 인한 정적 강화 및 사회화습의 결과 등을 꼽았다. 영재는 높은 자아개념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높으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걸고 있는 기대에도 민감하여 이에 부응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는 것이다. 성희경과 한기순(2011)의 연구 역시 이러한 영재

들의 인정 욕구를 보고한 바 있다. 또한, 목표지향적인 영재는 동기와 의지력이 매우 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성이 뛰어나다(Silverman, 2008).

완벽주의 성향이 영재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영재들이 나타내는 완벽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재들이 나타내는 완벽주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영재의 완벽주의 성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다차원적 요인을 가진 Hill 등(2004)의 PI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고, 영재의 완벽주의 측정에 대한 정확한 척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영재들의 완벽주의 성향은 개인적인 특성 변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동시에 환경과 문화적 맥락 안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문화에 따라 요인 구조와 그 구성 내용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칙도에 포함된 서구 문화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연구에서 보다 신뢰로운 구성 요인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척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영재의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구인을 탐색하고 이를 타당화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중학생과 과학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고, 자료수집은 예비검사와 본검사,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예비연구인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인천지역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학생 120명과 동일 지역 소재 과학고등학교 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230부 중, 불성실한 응답지 29부를 제외하고 20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대상은 경기, 인천지역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 교육대상자인 중학생 175명과 동일 지역 소재 과학고등학교 학생 180명에게 실시하였다. 본검사에서 불성실 응답자 27부를 제외한 총 328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검사의 연구대상은 남학생이 261명(79.6%), 여학생이 67명(20.4%)이었다.

2. 측정 도구

가. PI(Perfectionism Inventory)

Hill 등(2004)에 의해 개발된 PI는 8개의 하위요소, 총 5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리커트형 척도로 평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위계적인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성실성 완벽주의(Conscientious Perfectionism)와 자기평가적 완벽주의(Self-evaluative Perfectionism)로 구분된다. 성실성 완벽주의에는 조직화, 뛰어나려는 노력, 계획성, 타인에 대한 높은 기준이 포함되어 있고, 자기평가적 완벽주의에는 실수에 대한 염려, 인정욕구, 반추, 지각된 부모의 압력이 포함되어 있다. Hill 등(2004)의 연구에서 원칙도의 내적합치도는 .83이었으며, 8개 요인의 내적합치도는 .83~.91로 나타났다.

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MPS)

H-MPS는 Hewitt와 Flett(1991)이 개발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기연(1993)에 의해 한국어로 번안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완벽주의적 행동의 원천과 방향에 따라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세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이들 하위차원들은 각각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형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ewitt과 Flett(1991)의 연구에서 하위척도들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89, .79, .86이었고, 한기연(1993)의 연구에서는 .84, .73, .7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87, .77, .65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원 제작자인 Appalachian State University의 Hill 교수로부터 PI 영문판을 제공받아 진행되었으며, 한국어로 번안함에 있어 의미상 일치를 위해 번역-역번역 방법을 사용하였다(Brislin, 1970). 먼저 연구자와 함께 이중 언어사용자로 심리학을 전공한 석사 졸업생이 원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영어권에 5년 이상 거주하여 영어와 한국어 사용이 능숙한 심리학 전공 박사가 한국어로 번역된 문항을 영어로 역번역하여 차이가 있는 문항에 대해 재수정 작업을 거쳤다. 이를 다시 원문과 비교하여 의미 차이가 없도록 통번역대학원 과정을 마친 번역사와 영재교육 전공 박사과정 3인의 감수를 받았으며, 중학생 24명의 안면타당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59개의 예비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4. 분석방법

우선 척도의 예비검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문항의 기술통계치와 문항-총점 간 상관, 문항 간 상관 등을 검토하였다. 타당한 하위요인의 수를 확인하기 위해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전 방법은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최종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개발된 총 42개 문항의 검증을 위하여 6개 요인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발된 PI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H-MPS)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검사와 본검사 결과의 문항분석 및 모든 검증은 SPSS 22.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서 *CFI*, *TLI*, *RMSEA*의 모형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문항분석

문항분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평균이 극단 값을 갖거나 표준편차의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문항들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둘째, 각 요인별로 문항 간 상관, 문항-총점 간 상관을 산출하고 내적합치도를 검토하였다. 그 결

과 평균은 2.14~3.95, 표준편차는 .83~1.19의 값을 보였다. 각 요인별로 문항 간 상관, 문항-총점 간 상관을 산출하고 내적합치도를 검토한 결과, 문항 간 상관은 .02~.71에 분포하였으며, 문항-총점 간 상관은 .21~.72를 보여 .30이하의 문항(4번, 19번, 35번, 52번)인 4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내적합치도를 검토한 결과 전체 .92로,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를 증가시키는 문항 3개(10번, 23번, 53번)를 제거하였다. 문항분석 결과, 총 52개의 문항을 이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2. 탐색적 요인분석

새롭게 변안된 한국판 PI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SPSS 22.0을 사용하여 52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적합성을 알아보는 KMO(Kaiser-Meyer-Olkin) 지수는 .902로서 문항 간 상관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형성 검증을 위한 Bartlett's sphericity test 값은 7707.787($df=1326$, $p=.000$)로 요인분석이 적합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으로 회전 방법은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를 사용하였다.

요인을 구성하고 조직화하는데 있어 요인에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때 문항의 요인부하는 일반적으로 .30~.40보다 커야 하고, 한 문항이 두 개 이상의 요인에 동시에 부하되었을 때 그 부하량 차이가 .10 이상이 되어야 한다(Floyd & Widaman, 199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요인부하량이 .40 이하인 6개 문항('실수를 하면 그 날 하루를 다 망친다', '나는 조직적이고 규율화된 것을 좋아한다', '누군가 내 실수를 지적하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기분이 든다', '나는 방을 자주 청소한다', '나에게 실수는 곧 실패이다', '내가 한 어떤 일들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을 제거하였고, 2개 요인에 걸쳐 부하된 문항 4개('내가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낸다', '자라면서, 나는 모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압박을 많이 느꼈다', '심각한 실수를 하면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걱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를 제거하였다.

그 결과 6요인, 총 42문항의 척도가 구성되었다. 이는 원척도의 8개 하위요인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로, 원척도의 '실수에 대한 염려', '인정욕구', '반추'가 동일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요인은 원척도의 위계적인 요인구조에서 '자기평가적 완벽주의'에 속하는 4개의 요인 중 3개가 포함된 것으로, 이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은 강한 인정욕구로 실수에 대한 염려를 느끼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거나 평가하여 높은 기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기평가적 완벽추구'로 명명하였다. 그 외 나머지 요인은 원척도와 동일하게 '지각된 부모의 압력', '계획성', '뛰어나려는 노력', '타인에 대한 높은 기대', '조직화'로 명명하였다. 6요인 42문항의 총설명량은 54.88%이며, 각 요인별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최종 문항의 KMO 지수는 .897, Bartlett's sphericity test 값은 5753.704($df=861$, $p=.000$)로 나타났다.

< 표 1 > 최종 PI의 요인분석 결과(N=201)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 인					
		1	2	3	4	5	6
18	내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다.	.718					
40	실수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다.	.701					
16	나는 내가 한 일이나 해야 할 일에 대한 걱정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낸다.	.698					
2	나는 다른 사람들의 충고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696					
34	내가 잘못된 것을 말할까 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할 때가 있다.	.695					
26	나의 행동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우려한다.	.684					
49	나는 내가 말한 것을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일까 봐 자주 걱정한다.	.663					
42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신경을 쓴다.	.643					
6	내가 실수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지도 모른다.	.639					
22	나는 실수에 과민하게 반응한다.	.616					
32	내가 바보같이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종일 그 일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605					
14	나는 실수했을 때 특히 당황스럽다.	.567					
38	내가 일을 하나만 못해도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다 의심할 수도 있다.	.563					
55	일이 끝난 후, 좀 더 잘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한다.	.542					
47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성공하라는 부담을 많이 주었다.		.818				
15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대한 높은 기준을 갖고 계신다.		.817				
31	나의 부모님은 성공에 대해 기대가 높다.		.804				
7	내가 최고이길 바라시는 부모님의 압박을 느꼈다.		.796				
54	나는 나의 부모님이 내가 완벽해지기를 바란다고 느꼈다.		.784				
58	나의 부모님은 단지 내가 최고이기를 기대하신다.		.774				
21	충분히 생각한 다음 결정을 내린다.			.794			
45	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다.			.696			
5	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여러 가능성을 고려한다.			.687			
29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기 위해 충분히 생각하는 편이다.			.665			
37	나는 행동을 취하기 전에 계획할 시간이 필요하다.			.647			
13	나의 결정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582			
9	완벽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671		
25	내가 한 모든 일에서 나는 최고여야 한다.				.670		
17	일을 어중간하게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669		
1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일은 완벽해야 한다.				.613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 인					
		1	2	3	4	5	6
41	내가 하는 모든 분야에서 탁월함을 달성해야 한다.				.600		
33	높은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나 스스로를 엄격하게 이끈다.				.532		
43	다른 사람이 조심성 없이 실수하면 받아주지 못한다.					.725	
50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실망하는 편이다.					.694	
11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화가 난다.					.631	
27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적인 편이다.					.625	
3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내 기준에 미달되면 지적하는 편이다.					.574	
51	나의 책상은 깔끔하고 정리되어 있다.						.823
56	내가 일(공부)하는 공간을 잘 정리하는 편이다.						.748
44	물건을 사용하자마자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693
12	물건을 항상 제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655
20	나 자신이 질서 정연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28
고유값		14.20	4.52	3.70	2.64	1.92	1.57
설명분산(%)		27.31	8.70	7.13	5.04	3.68	3.02
누적분산(%)		27.31	36.00	43.13	48.18	51.86	54.88

3.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한국판 PI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42문항에 대한 전체 내적합치도는 .93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를 검토한 결과, 요인 1은 .92, 요인 2는 .91, 요인 3은 .83, 요인 4는 .83, 요인 5는 .78, 그리고 요인 6은 .81로 나타났다. 요인 간 평균, 표준편차, 상관 및 내적합치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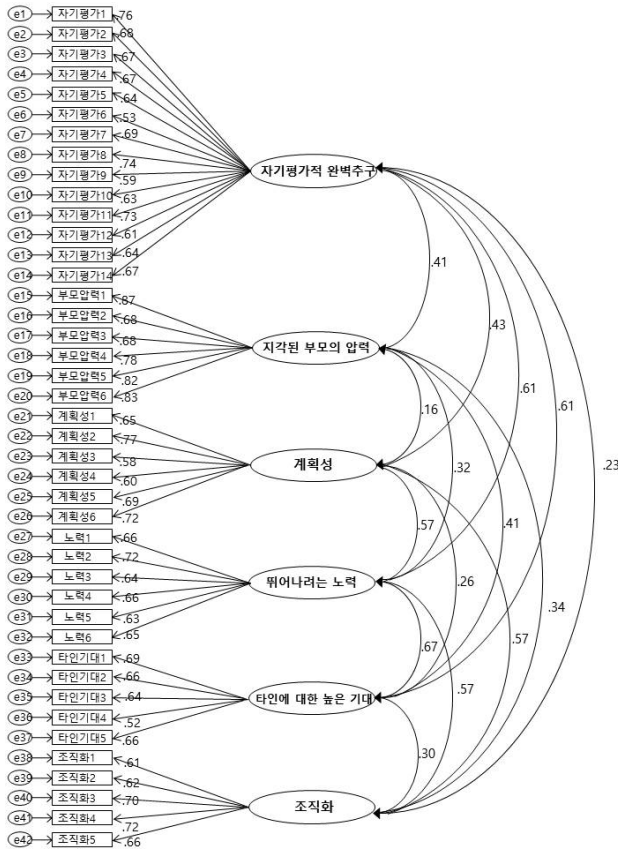
<표 2> 한국판 PI의 하위요인별 평균, 표준편차, 내적합치도 및 하위요인 간 상호상관(N=328)

	M(SD)	요인					
		1	2	3	4	5	6
요인 1 자기평가적 완벽추구	3.26(.75)	1					
요인 2 지각된 부모의 압력	2.94(.92)	.38	1				
요인 3 계획성	3.67(.67)	.36	.12	1			
요인 4 뛰어난 노력	3.98(.92)	.53	.27	.48	1		
요인 5 타인에 대한 높은 기대	2.73(.76)	.50	.31	.19	.53	1	
요인 6 조직화	2.93(.84)	.17	.28	.45	.44	.22	1
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92	.91	.83	.83	.78	.81
한국판 PI에 대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93					

4.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6요인 구조가 적절한 구조인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모형에 대해 적합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요인의 모형이 경험적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PI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한국판 PI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또한, 총 6개 요인의 42개 문항에 대한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모형 적합도 검증결과

검증 모형	χ^2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low	high
검증 모형	1257.618	792	.903	.911	.047	.042	.052

χ^2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고 표본크기가 클수록 모형을 쉽게 기각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모형을 평가하는데 참고하는 정도만 사용하였고, 표본크기에 덜 민감한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를 모형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CFI*, *TLI*가 .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하며(홍세희, 2000), *RMSEA*가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로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 적합도는 $\chi^2=1257.618$ ($df=792$, $p=.00$), *TLI*=.903, *CFI*=.911, *RMSEA*=.047로 나타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R.*(Critical Ratio)은 경로계수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으로 *C.R.*값이 ± 1.965 보다 크거나 p 값이 .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2). <표 4>와 같이 *C.R.*값은 모두 1.965 이상으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각 문항들은 하위요인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한국판 PI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자기평가적 완벽추구	자기평가1	1.07	.76	.097	11.03***
	자기평가2	.93	.68	.093	10.04***
	자기평가3	.95	.67	.097	9.84***
	자기평가4	.91	.67	.092	9.93***
	자기평가5	.93	.64	.097	9.58***
	자기평가6	.72	.53	.090	7.97***
	자기평가7	.93	.69	.091	10.14***
	자기평가8	1.14	.74	.105	10.86***
	자기평가9	.77	.59	.088	8.75***
	자기평가10	.92	.63	.099	9.37***
	자기평가11	1.08	.73	.100	10.74***
	자기평가12	.89	.61	.098	9.12***
	자기평가13	.87	.64	.092	9.46***
	자기평가14	1.00	.67		
지각된 부모의 압력	부모압력1	.99	.87	.060	16.77***
	부모압력2	.76	.68	.063	12.02***
	부모압력3	.69	.68	.057	11.99***
	부모압력4	.94	.78	.065	14.53***
	부모압력5	.99	.82	.064	15.62***
	부모압력6	1.00	.83		
계획성	계획성1	.82	.65	.089	9.25***
	계획성2	1.10	.77	.118	9.24***
	계획성3	.77	.58	.092	8.40***
	계획성4	.73	.60	.084	8.68***
	계획성5	.99	.69	.101	9.79***
	계획성6	1.00	.72		
뛰어나려는 노력	노력1	.99	.66	.111	8.95***
	노력2	1.35	.72	.140	9.64***

요인	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노력3	1.06	.64	.121	8.79***	
	노력4	.94	.66	.104	9.00***	
	노력5	1.04	.63	.121	8.54***	
	노력6	1.00	.65			
	타인에 대한 높은 기대	타인기대1	1.03	.69	.120	8.56***
		타인기대2	1.05	.66	.126	8.36***
타인기대3		.98	.64	.119	8.28***	
타인기대4		.83	.52	.118	7.03***	
타인기대5		1.00	.66			
조직화	조직화1	1.03	.61	.127	8.15***	
	조직화2	1.03	.62	.125	8.24***	
	조직화3	1.09	.70	.119	9.13***	
	조직화4	1.29	.72	.137	9.40***	
	조직화5	1.00	.66			

5. 공인타당도 검증

PI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기준에 타당성을 입증받고 있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H-MPS)’와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PI와 H-MPS의 총점 및 하위요인의 상관은 <표 5>와 같다. <표 5>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를 살펴보면, PI의 하위요인인 ‘자기평가적 완벽추구’와 ‘지각된 부모의 압력’은 H-MPS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타인에 대한 높은 기대’는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계획성’과 ‘뛰어나려는 노력’, ‘조직화’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뛰어나려는 노력’은 H-MPS 총점과도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PI의 총점은 H-MPS의 세 하위요인 및 총점과 모두 밀접한 정적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표 5> 한국판 PI와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H-MPS)와의 상관분석 결과(N=328)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H-MPS 총점
자기평가적 완벽추구	.424**	.455**	.557**	.579**
지각된 부모의 압력	.316**	.276**	.660**	.488**
계획성	.573**	.190*	.243**	.444**
뛰어나려는 노력	.770**	.483**	.432**	.723**
타인에 대한 높은 기대	.419**	.582**	.437**	.587**
조직화	.461**	.303**	.289**	.448**
PI 총점	.653**	.550**	.627**	.755**

* $p < .05$, ** $p < .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재들의 완벽주의 성향을 정확하게 인식, 이해하기 위해 영재들의 완벽주의를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Hill 등(2004)의 PI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6요인 구조를 발견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의 적절성과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Hill 등(2004)의 PI를 번안하고 영재학생 201명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여 한국판 PI의 구조를 살폈다. 총 59개 문항 중 문항분석을 통해 7개 문항을 제거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부하량이 낮거나 2개 요인에 걸쳐 부하된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42개 문항, 6요인의 최종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는 원척도의 8요인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로, 원척도의 ‘실수에 대한 염려’, ‘인정욕구’, ‘반추’가 동일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1은 ‘자기평가적 완벽추구’로 명명하였으며 강한 인정욕구로 실수에 대한 염려를 느끼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거나 평가하여 높은 기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2~6은 원척도와 동일하게 명명하였는데, 요인 2는 ‘지각된 부모의 압력’으로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대한 높은 기준을 갖고 계신다’ 등의 6개 문항을 포함한다. 요인 3은 ‘계획성’으로 ‘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여러 가능성을 고려한다’ 등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요인 4는 ‘뛰어나려는 노력’으로 완벽한 결과 달성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문항 6개로 이루어져 있다. 요인 5는 자신에게 기대가 높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높은 기대’로 ‘다른 사람이 조심성 없이 실수하면 받아주지 못한다’ 등의 5개 문항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요인 6은 깔끔함과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인 ‘조직화’이며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 척도의 각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는 .78~.94 사이로 문항 수를 고려할 때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고,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 역시 .93으로 신뢰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한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1257.618$ ($df=792, p=.00$), $TLI=.903$, $CFI=.911$, $RMSEA=.047$ 로 나타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I와 H-MPS의 상관분석 결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한국판 PI가 영재의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는 신뢰로운 도구이며,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뛰어나려는 노력($M=3.98$)이 다른 하위 요인(자기평가적 완벽추구 $M=3.26$, 지각된 부모의 압력 $M=2.94$, 계획성 $M=3.67$, 타인에 대한 높은 기대 $M=2.73$, 조직화 $M=2.93$)보다 평균값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과주의 체제에서, 영재들은 주어진 많은 과업들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부담과 함께 ‘잘’ 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일반학생보다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한기순, 2013). 결국 영재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기를 기대하고, 완벽한 결과의 달성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스스로를 엄격하게 이끄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부과하는 자기 지

향적 완벽주의가 자신의 노력을 완벽히 갖추려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내적 동기화가 강하며 수행에서 성공에 최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실패나 실수를 피하고자 많은 에너지를 쏟는 특징을 가진다는 서정연(2009)의 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셋째, 요인분석 결과 ‘실수에 대한 염려’, ‘인정욕구’, ‘반추’, ‘지각된 부모의 압력’, ‘계획성’, ‘뛰어나려는 노력’, ‘타인에 대한 높은 기대’, ‘조직화’의 8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 원척도의 구조가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영재들이 인식하는 각 요인의 문항 내용이 하나의 맥락에서 연결되어 동시에 함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실수에 대한 염려’는 실수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승인 받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며, 실수를 실패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경향성이다. ‘반추(rumination)’는 목표의 불일치에 의해 유발되고, 비의도적으로 반복되는 사고이다(Martin & Tesser, 1996). 여러 학자들은(Flett, Coulter, Hewitt, & Nepon, 2011; Flett, Madorsky, Hewitt, & Heisel, 2002) 자기지향적 및 타인지향적 완벽주의가 일관되게 반추의 상승과 연합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은 목표에 관하여 완벽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목표의 실패에 대해 반추하며, 이상적인 자기와 실제의 모순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또한, 완벽주의는 관계 집착 및 승인 욕구와 같은 애착 변인과 강한 관련성이 있다(Andersson & Perris, 2000). Davis와 Rimm(1998)은 완벽주의 성향이 의미 있는 타인에게 인정과 애정을 받고 싶은 욕구 위에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높은 기준이나 목표를 추구하는 완벽주의 성향은 그 목표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실패에 대한 염려가 뒤따르게 되고, 그 목표의 실패에 대해 반추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문화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주의가 지배적인 서구문화에서는 스스로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이 있다(Colvin, Block & Furder, 1995; Farh, Dobbins, & Cheng, 1991). Cahoon(1996)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는 독특성과 독자성이라고 언급하였다. 결국 서구에서는 타인에게 인정을 받기 원하는 인정욕구와 실수에 대한 염려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스스로를 다소 낮게 평가하고 타인의 평가를 인식하는 경향 때문에 실수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인정욕구와 실수에 대한 염려가 구분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Hill 등(2004)이 개발한 PI를 번안하고 영재의 특성과 한국문화를 반영한 완벽주의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여 이를 타당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 문화가 서구 문화보다 타인의 평가나 시선을 의식하고 집단주의적 성향이 더 강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판 PI는 향후 이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서구문화에서 개발된 원척도의 모든 문항과 하위요인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 어떠한 요인구조와 문항이 가장 적합하게 도출되는지 살펴서 영재가 지닌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완벽주의는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 및 그가 속한 집단의 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한기순(2006)이 지적한 바 있는 ‘영재라는 라벨이 부여하는 특별한 의미’와 같이 지속적으로 높은 성취를 보여 온 영재들에 대한 주변의 기대, 끊임없는 성과와 업적을 강요하는 사회는 영재의 완벽주의

성향을 복합적으로 만들어내고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더욱 그렇다.

이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원척도의 59개 문항이 한국어로 번안되고 요인분석을 거치면서 42개 문항으로 축소되었다. 이와 같이 외국의 척도를 국내에서 타당화하면서, 원척도와 다른 요인구조 및 확연히 줄어든 문항 구성을 제안하는 것은 여러 우려가 따를 수 있다. 우선적으로 다른 표본에게 척도를 실시했을 때에도 동일한 모형이 지지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며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는 반복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원척도와 한국판 척도에서 공통적인 요인뿐 아니라, 일치하지 않는 요인 역시 확인된 것은 영재가 지닌 특성과 함께 문화에 따른 특수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재의 완벽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구성 요소를 밝히는 데 있어 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마지막으로, PI는 기존의 완벽주의 척도와 공통되면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척도로 소개되었다.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봄은 물론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타당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 간의 차이점을 규명하며 원인을 밝혀보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영재의 완벽주의 연구의 흐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김윤희, 서수균 (2008). 완벽주의에 대한 고찰: 평가와 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581-613.
- 김혜진, 김옥분 (2009). Rasch 측정모형의 적용을 통한 대학생용 단축형 완벽주의 척도 구성. **교육평가연구**, 22(3), 757-781.
- 서정연 (2009). 중·고등학생용 완벽주의 척도의 타당화.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성희경, 한기순 (2011). 영재의 고민과 상담요구에 대한 개념도 분석. **청소년학연구**, 18(9), 309-336.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윤여홍 (2000). 영재의 심리적 특성과 정서발달을 위한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19(1), 79-101.
- 윤초희, 윤여홍, 김홍원 (2004). 지적으로 우수한 영재아의 심리학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2), 117-196.
- 이기중, 김은주 (2007). 완벽주의 척도의 타당화 재검증. **교육평가연구**, 20(1), 45-71.
- 하정희 (2010).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척도(PSP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2), 221-239.
- 한기순 (2006). 과학영재교육원을 통해서 본 영재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인류학연구**, 9(1), 123-151.
- 한기순 (2013). 피로사회 속 영재와 영재교육에 관한 담론. **영재교육연구**, 23(6), 965-979.

- 한기순, 황은하 (2010).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완벽주의와 학교적응간의 관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열린교육연구*, 18(3), 27-45.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혜리 (2002). **적용적 완벽주의와 부적용적 완벽주의의 심리적 특성 비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Andersson, P., & Perris, C. (2000). Attachment styles and dysfunctional assumptions in adult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7(1), 47-53.
- Brislin, R. W. (1970). Back-translation for cross-cultural research.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3), 185-216.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November, 34-52.
- Cahoon, N. (1996). *History of the Western min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lvin, C. R., Block, J., & Funder, D. C. (1995). Overly positive self-evaluations and personality: Negative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6), 1152-1162.
- Davis, G. A., & Rimm, S. B. (1998).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Boston, MA: Allyn & Bacon.
- Farh, J. L., Dobbins, G. H., & Cheng, B. S. (1991). Cultural relativity in action: A comparison of self ratings made by Chinese and US workers. *Personnel Psychology*, 44(1), 129-147.
- Flett, G. L., Coulter, L. M., Hewitt, P. L., & Nepon, T. (2011). Perfectionism, rumination, worry, and depressive symptoms in early adolescents.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6(3), 159-176.
- Flett, G. L., & Hewitt, P. L. (2006). Positive versus negative perfectionism in psychopathology a comment on Slade and Owens's Dual Process Model. *Behavior Modification*, 30(4), 472-495.
- Flett, G. L., Madorsky, D., Hewitt, P. L., & Heisel, M. J. (2002). Perfectionism cognitions, ru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20(1), 33-47.
- Floyd, F. J., & Widaman, K. F. (1995). Factor analysis in the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clinical assessment instrum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7(3), 286-299.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I., & Neubauer, A. L. (1993). A

-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119-126.
- Frost, R. O., Marten, P. A.,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Harmachec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15, 27-33.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Hill, R. W., Huelsman, T. J., Furr, R. M., Kibler, J., Vicente, B. B., & Kennedy, C. (2004). A new measure of perfectionism: The perfectionism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2(1), 80-91.
- Luthar, S. S., Zigler, E., & Goldstein, D. (1992).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intellectually gifted adolescents: The role of cognitive developmental and experiential factor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3(2), 361-375.
- LoCicero, K. A., & Ashby, J. S. (2000).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in middle school age gifted students: A comparison to peers from the general cohort. *Roeper Review*, 22(3), 182-185.
- Martin, L. L., & Tesser, A. (1996). Clarifying our thoughts. *Ruminative thought: Advances in Social Cognition*, 9, 189-209.
- Parker, W. D. (2000). Healthy perfectionism in the gifted. *Prufrock Journal*, 11(4), 173-182.
- Parker, W. D., & Mills, C. J. (1996). The incidence of perfectionism in gifted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40(4), 194-199.
- Pacht, A. R. (1984). Reflections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386-390.
- Rice, K. G., & Slaney, R. B. (2002). Clusters of perfectionists: Two studies of emotiona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5(1), 35-48.
- Shafran, R., Cooper, Z., & Fairburn, C. G. (2002). Clinical perfectionism: A cognitive - behavioural analy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7), 773-791.
- Silverman, L. K. (2008). 영재상담 [이미순 역]. 서울: 박학사. (원본출간년도: 1993).

= Abstract =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erfectionism Inventory (PI) for Gifted Students

So-Young Yo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i-Soon Ha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at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erfectionism Inventory which was developed by Hill et al.(2004). To do so,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th 167 science high school and 161 middle school gifted students were conducted. It appeared 6 factor structure consisting of 'Self-Evaluative Perfection Strivings', 'Parental Pressure', 'Planfulness', 'Striving for Excellence', 'High Standards for Others', and 'Organization', which does not support 8 factor of the original scale. As a result, Cronbach's α ranged from .78 to .92 for subscale of PI and .93 for the total scale. The fit of measurement model was found to be $\chi^2=1257.618$ ($df=792$, $p=.00$), $TLI=.903$, $CFI=.911$, $RMSEA=.047$, indicating most of fit indexes were acceptable. Also, the validity of the scale was examined by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PI and MPS. PI Korean version is significant to confirm the factor structure and validity of perfectionism which was influenced by characteristics of gifted students and Korean culture. These results show that the PI is quite reliable and valid tool for measuring perfectionism for gifted students.

Key Words: Gifted Student, Perfectionism, Scale Validation

1차 원고접수: 2015년 10월 6일
수정원고접수: 2015년 10월 30일
최종게재결정: 2015년 10월 30일